

내 달력, 하나님의 달력

My Calendar, God's Calendar

출애굽기 12:1-14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1년 1월 2일 설교

¹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²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³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⁴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⁵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⁶이 달 십 사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⁷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⁸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⁹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¹⁰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¹¹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이니라. ¹²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무론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¹³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¹⁴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새해를 맞아

2011년 첫 주일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또 봐 주셔서 이렇게 또 한 해를 허락하셨습니다. 낮 뜨겁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이왕 시작한 한 해 하나님께서 올해도 은혜 많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 잘 믿고 순종해 복 받기를 바랍니다. 새해인사를 우리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영어로는 “해피 뉴 이어!” 하는데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좋은 일 많이 생겨 즐거운 한 해가 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은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이라도 뜻은 달라야 되겠지요. 복 받으라 한다고 남들처럼 돈 복, 건강 복, 자식 복, 출세 복 그런 복 받으라 하는 게 아니고 주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사랑의 복, 기쁨의 복, 평안의 복, 위로의 복, 힘주시는 복, 찬송의 복, 이웃에게 베푸는 복, 감사의 복, 이런 걸 많이 받으라고 서로 빌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인사를 나누셨겠지만 이런 뜻을 새겨서 옆에 앉은 분들하고 한 번 더 나누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들통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전자수첩이나 휴대폰 같은 게 있어서 많이들 하지 않습니다만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해가 바뀌면 새 수첩에 이름 하고 전화번호를 옮겨 적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옮겨 적으면서 한 해를 돌아보는데 어떤 이름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다시 옮겨 적지만 어떤 건 옮길까 말까 고민도 되지요. 어떤 이름은 몇 해째 연락이 오간 적이 없는데도 옮겨 적습니다. 왜 옮겨 적는지는 나도 모르지요. 그렇게 옮겨 적다 보면 수첩에 안 적은, 아니 차마 못 적은, 그런 이름도 생각이 납니다. 왜 차마 못 적습니까? 수첩은 비밀번호가 안 되니까요. 그렇게 지난해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체를 돌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머리도 좋아집니다.

이런 걸 못 해 본 세월이 벌써 몇 해 되었습니다. 좀 아쉽지요. 편리한 만큼 삶이 메말라간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렇다고 휴대폰에 있는 번호를 괜히 지웠다가 다시 쓸 수도 없고..... 그냥 세월만 갑니다.

새 달력

그렇지만 예나 지금이나 해가 바뀌면 반드시 바꾸어야 되는 게 하나 있지요? 뭘니까? 예, 눈치 빠른 분들은 주보를 얼른 보고 답을 찾았습니다. 달력입니다. 달력은 새해가 되면 새 걸 걸어야 됩니다. 컴퓨터나 휴대폰에도 달력이 있지만 벽에

걸어놓고 늘 봐야 되니 컴퓨터로는 안 됩니다. 제 생각에 컴퓨터가 아무리 발전해도 종이가 된 책은 안 없어질 것 같은데 달력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전자기기가 아무리 발전해도 달력은 종이에 찍어 벽에 걸어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으니까 너무 믿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달력을 왜 그렇게 벽에 걸어야 됩니까? 우선 날짜를 봐야 되지요. 오늘이 며칠이나, 무슨 요일이나 수시로 확인합니다. 왜 확인합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요. 정해진 날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가운데 중요한 건 달력에 적습니다. 식구들 생일은 안 적어도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내 생일을 평생 안 잊어먹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잊어먹으면 됩니다. 한 번만 모르고 지나가면 평생 안 잊어버리게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생일이나 중요한 날도 적고, 병원 갈 날, 치과 예약, 아이들 선생님 면담, 아이들 음악회, 전기요금 낼 날, 부모님 생신 전날, 세탁기 배달 오는 날, 손님 오기로 한 날, 공항 나갈 날, 등등 끝도 없습니다.

공통점이 뭐니까? 미래의 일만 적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기 위해 달력에 적습니다. 그러니 지나간 건 안 적습니다. 지나간 날짜도 이따금 뒤적일 일이 있지요. 하지만 달력에 안 적어서 깜빡한 일을 지난 다음 달력에 적지는 않지요. 저희 집은 달력이 역사 자료라서 지난 달력을 한 해도 안 빼고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자료에도 지나간 일을 적어 넣지는 않습니다. 달력에는 앞으로 있을 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적습니다.

여러 가지 달력

달력을 벽에 건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렇게 벽에 거는 건 달력이 아니고 달력을 인쇄한 종이지요. 보통 그렇게 달력을 인쇄한 종이를 달력이라 부릅니다만 달력의 본디 뜻은 그렇게 종이에 찍혀있는 내용, 그러니까 시간과 날짜 등을 계산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양력, 음력, 그레고리력, 교회력 등이 다 서로 다른 달력입니다.

달력의 역사를 한 번 찾아보았더니 생각보다 복잡하더군요. 특히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처럼 종교를 기준으로 한 달력이 많고 나라마다 문화마다 저 나름의 달력을 만들어 썼습니다. 그렇지만 다르다고 해도 한 해를 며칠로 하느냐, 중요한 날짜가 언제냐, 이런 게 조금 다를 뿐이고 전 세계 모든 달력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월과 해와 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이라는 게 생겼다 말씀드렸는데 시간의 가장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 아니라. 날입니다. 해가 떴다 지면 하루가 됩니다. 지구가 한 바퀴 자전을 하는 건데 이게 우주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거듭되고 있는 일입니다. 날 다음은 달입니다. 달이 한 번 차고 기우는 걸 한 달이라 합니다.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기간이지요. 보통 삼십 일로 보는데 이게 좀 길어서 주간으로 나눕니다. 고대 중국이나 이집트는 열흘, 고대 로마는 여드레를 한 주로 정했지만 대부분은 성경처럼 이레를 한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또 해가 날마다 뜨고 지면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다가 다시 따뜻해지를 되풀이합니다. 이렇게 한 번 추워졌다가 다시 따뜻해지는 기간을 한 해라 부르지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기간인데 이 해도 날처럼 태양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날도 해도 한자로 하면 일(日)이지요.

그러니 달력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라”(창 1:14). 해, 달, 별을 말씀하시는 거지만 핵심은 해, 곧 태양이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도, 하루 하루 일자도, 그리고 한 해 두 해 연도도 다 이 해를 기준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부르기는 해력이라 안 하고 뭐라 합니까? 달력이라 하지요. 영어 캘린더도 매달 첫 날을 가리키는 라틴에서 온 거니까 영어로도 달력입니다.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해마다 왜 새 달력을 겁니까?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왜 달력에 적어둬니까? 제대로 살아 보려고 그러는 거겠지요? 바쁘게 뛰다 보면 깜빡 잊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래서 적어두는데, 우리 삶이 그렇게 달력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달력에 적어두는 게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시간 안을 사는 우리 인생, 물처럼 흐르는 시간을 날로 달로 해로 나누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마다 달력을 걸고 거기다 계획을 적어가며 삽니다. 그러니 연초에 거는 달력은 우리 인생 계획표인 셈입니다. 내 중요한 날이 그 계획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 달력에 따라 일도 하고 놀기도 하고 장기계획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일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달력에 따라 살았습니다.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그 나라 총리가 되고 온 세상

에 흉년이 들면서 야곱의 후손이 다 이집트로 가 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 달력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지만 당시 이집트는 문명이 발달한 나라였기 때문에 꽤 좋은 달력을 만들어 쓰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삼십 일로 되어 있고 그런 달이 열 두 개 지난 다음 닷새가 더 지나면 한 해가 되었습니다. 한 해가 대략 365일하고 1/4인 줄 알았고 그 1/4을 채워 넣는 방법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집트를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박해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 주시고 여러 가지 재앙도 내리셨지만 이집트 왕은 그 때마다 보낼 듯 보낼 듯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처음 태어난 수컷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죽이는 벌을 내리시자 그제야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유월절과 새 달력

이집트의 모든 말아들과 동물의 첫 새끼를 죽이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유월절이지요.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서 지나갈 것이라 하였습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그렇게 넘어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양을 잡아 피는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고기는 무교병 및 쓴 나물과 함께 먹되 떠날 차비를 한 채로 서둘러 먹으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먹었습니까? 이제 날이 새면 이집트를 떠날 거거든요. 쫓겨나다시피 떠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집트를 떠날 때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해마다 이 유월절 의식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생활에서 건지신 것을 기념하는 의식인 동시에 하나님이 모든 처음 난 수컷을 죽이실 때 우리는 그 재앙에서 면제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는 잔치였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고 첫 것을 죽이시는 일에서 구원받았으니 유월절은 한 마디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잔치를 언제 어떻게 지켜라 하고 명령하시기 전에 다른 명령을 하나 먼저 주셨는데 그게 뭘고 하니 달력부터 바꾸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때가 이집트 달력으로는 칠월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달을 정월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이름은 아빔입니다. 나중에 바빌로니아 포로로 잡혀간 뒤에는 니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첫 달, 곧 정월입니다. 날짜는 그대로 갑니다. 그 달 십 일에 염소나 양을 한 마리 골라 놓았다가 나흘 뒤인 십 사 일에 잡아 유월절 음식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날짜는 그렇게 그대로 두고 달만 바꾸라 하셨습니다. 아직 반 정도밖에 못 넘긴 달력은 두고 새 달력을 걸라는 말씀이지요? 갑자기 왜 새 달력입니까?

구원의 달력

새 달력을 받을 때쯤에는 마음이 설렙니다. 꿈도 크지요. 그렇지만 막상 한 해를 시작하면 어떨습니까? 꿈도 낭만도 사라집니다. 현실이거든요. 처음 달력을 볼 때는 디자인이 어떻다느니 그림이 예쁘다느니 그런 소리도 하지만 여름을 지날 때쯤이면 새 달로 넘어가도 그림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도 생각할 틈이 있고, 꿈도 꺾 보고, 앞뒤 돌아볼 수 있는 때가 정월, 곧 첫 달입니다. 일년 삼백 육십 오일이 알고 보면 다 같은 날이지만 그래도 일월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 시작해 보고 싶고, 그래서 결심도 하고, 힘도 좀 나고, 뭔가 될 것도 같고, 그게 정월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달력에서, 우리 삶의 계획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써 오던 달력을 없애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천지의 운행을 통해 인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거기다 더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달을 정월로, 한 해의 첫 달로 바꾸라 하셨습니다.

한 번 있고 말 일이라면 달력을 바꾸라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구원의 달을 첫 달로 만들라 하신 이유는 앞으로 해마다 그 날을 기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동안 또 그 땅에 들어가서도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 생애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니 해마다 기념하고 감사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렇게 해마다 정초에 그렇게 그 날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면 한 해를 설계할 때도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생각하면서 뜻 깊게 지킬 뿐 아니라 한 해 전체의 삶까지 좌우할 수 있도록 그 달을 정월로 만드신 것입니다.

본문 2절의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라는 말을 두 번 하셨습니다. 이 달이 “너희에게는” 첫 달, “너희에게는”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너희에게는 그렇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에게는 안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내 백성이 된 너희, 내가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고, 처음 태어난 것들을 죽일 때도 안 죽이고 살려둔 너희에게는, 이 달이 한 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달이 되어야 한다, 내가 준 이 구원이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가장 귀한 사건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섭리의 달력

달력을 바꾸라 하신 말씀에는 다른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달력 말고 또 다른 달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달력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써 넣은 달력이 있지만 그 달력 말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써 넣으시는 달력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달력은 알 수 있는 달력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써 넣고 우리가 이루어가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달력은 있는 줄만 알지 내용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나고 난 다음 내용이 파악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력이 우리가 가진 달력하고 안 맞는 때가 많습니다. 내 달력에서는 이제 한참 여름인데 하나님 달력에서는 동짓달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 전 일입니다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유학을 가 설교학을 공부하고 귀국했습니다. 설교학 교수가 없던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쳤는데 그분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달력에는 적어도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그분이 설교학을 잘 가르쳐 좋은 목회자를 길러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달력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달력에서는 그분이 신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하는 그 해가 바로 그 분의 달력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달력에 그렇게 되어 있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달력이 훔쳐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그 찬란한 빛 아래 참으로 초라해지는 우리 인생의 달력을 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애써보는 달력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달력

새 달력을 내걸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달력 말고 하나님의 달력이 따로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십니다. 그 달력은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달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가진 달력하고는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계획도 세우고 잊지 않으려고 적어두기도 하고 긴 시간 동안 노력도 하지만 그게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은 내 달력 아닌 하나님의 달력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 16:9).

그럼 우리가 가진 세상 달력은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알고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달력은 세상 달력 그것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일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달력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검은 글자에는 일하러 가고 빨간 글자에는 쉽니다. 주일이면 그 달력에 따라 이렇게 나와 예배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달력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신 29:29). 당신의 달력 어느 날짜에 무슨 일이 들어 있는지 보여 주시는 대신 우리 달력에 무엇을 적어야 할지, 무엇을 적고 실천해 가야 할지 그걸 알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맞추어갈 때 우리 달력이 하나님의 달력과 같아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내 세상 달력에 뭐가 들었습니까? 내 계획, 내 희망, 내 야망, 내 욕심, 내 탐욕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당신의 계획, 당신의 뜻에 맞추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아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순종의 자유까지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또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서로 나눔으로써 나 스스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달력을 찾아가고 우리 달력을 그 달력에 맞추어 가기를 바라십니다.

어리석은 사람

야고보서 사 장에는 하나님의 달력을 생각지 않고 내 달력만 생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십 삼, 십 사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치밀한 계획을 짜고 그 계획대로 돈을 벌며 멋지게 살아 보리라 하였지만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기대하시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달력에 있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의 달력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며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달력에 있지 않은 일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달력을 생각하지 못한 어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눅 12:16-21). 그 부자는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창고를 증축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 부자가 속으로 뭐라 했습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였습니다. 그 부자의 달력에는 이제 창고 가득한 재물로 즐길 날들만 적혀 있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달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달력에서는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은 그 날이 그 사람 달력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두 달력을 하나로

하나님의 달력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올해는 그리니치 사는 아무개, 스태포드 사는 아무개를 며칠날 교회로 인도하시기로 했는지도 모르고 굶어 죽어가는 아프리카 어느 부족을 살리고 그 가운데 몇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지는 압니다. 하나님의 달력에는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 건지, 우리를 어떻게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인도하실 건지, 그런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달력에 이웃을 전도하는 일,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일, 해외선교 사업에 동참하는 일이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 달력에 그런 일을 적어 놓고 기도하면서 애를 쓴다면 우리 달력이 하나님의 달력에 조금씩 가까워질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내 달력을 알차게 만들어 잘 이루어 가야 됩니다. 개인의 일, 가정의 일, 회사 일도 잘 꾸려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연의 달력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달력, 하나님의 사랑의 달력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 해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새해 달력에는 뭐가 적혔습니까? 올해 내가 새 달력에 가장 큰 글씨로 써 넣은 건 뭘니까? 우리 달력에 하나님의 달력이 조금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달력은 아무 뜻 없는 종이가 되고 맙니다. 죽은 달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달력을 갖고 살면서도 그 달력을 하나님의 달력에 맞추어가고 애쓰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의 달력에서 어느 날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달력 어느 날짜에 뭘 적어 넣기를 바라시는지 그건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생각할 수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달력을 생각하는 지혜를 갖기 바라고, 그런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온전히 이끄는 그런 삶을 시작뿐 아니라 연말까지 꾸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수경 목사)